

데스크 시각



박진현
현지부국장 겸 문화선임기자

삼성미술관 리움 in 광주

있다. 자연사박물관, 자동차박물관, 유리의 성, 아프리카박물관, 영화박물관, 성(性)박물관, 조콜리박물관, 트리아트 뮤지엄, 소리 섬박물관 등 89곳(2012년 기준)에 이른다. 이 가운데 연간 관람객이 50만 명 이상인 곳이 10개나 된다.

제주도가 '미술관 천국'으로 변신한 이유는 한해 평균 1천만 명에 이르는 관광객들에게 불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물론 천혜의 관광관과 올레길이라는 '올킬 콘텐츠'가 있지만 특색있는 사립미술관 역시 더 할 나위 없는 관광자원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가족들과 함께 둘러본 '유리의 성'은 관광제주의 파워를 느낄 수 있던 현장이었다. 고백하자면 표를 끊을 때만 해도 "아이들이나 보는 미술관 입장료가 무슨 9000원이나 하냐"며 뜻미행해 했었다.

하지만 유리의 성에 밤을 들여놓는 순간 '본전' 생각이 싸악 달아났다. 개인사업자가 지난 2008년 130억 원을 들여 제주시 한경면에 조성한 유리의 성에는 이탈리아의 피노 시노레토 등 세계적인 작가의 작품과 5000개의 유리로 지어진 거울방 등 특색있는 콘텐츠들로 넘쳐났다.

마침 전시장을 가득 메운 중국 단체관객들의 입에선 탄성이 터져 나왔다.

이처럼 미술관은 관광도시의 커리큘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자자체들은 '색깔있는' 미술관들을 유치하

는데 사활을 건다. 최근 대구시가 세계적인 작가 이우환과 스타건축가 안도 다다오라는 환상조합을 내세워 '이우환 미술관'을 추진하는 것이나, 광주시가 오는 2015년 개관에 정인 아시아 문화전당내 미술관 유치를 놓고 문화관광부와 신경전을 벌이는 것도 그 때문이다.

리움미술관 유치 도전하라

사실 예상 1번지이자 비엔날레의 개최지인 광주시는 '미술관 불모지'나 다름없다. '미술의 도시'라는 타이틀에 걸맞는 미술관이 드물기 때문이다. 국립광주박물관, 광주시립미술관, 의재미술관외에는 딱히 손꼽을 만한 미술관이 떠오르지 않는다. 광주비엔날레를 관람한 외지관광객들이 1박 하지 않고 부산이나 전주로 방향을 트는 것도 밤길을 불잡는 불가리가 부족한 탓이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미술관 효과'에 눈을 뜨는 광주시가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아시아 현대미술관의 전당내 건립 등을 놓고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실현여부로 넘쳐났다. 우선 문광부가 '전당내 미술관 설치 불가'를 고수하고 있는 데다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은 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힘이 빠진 상황이다. 게다가 시가 요즘 만지작거리고 있는 아시아 현대미술관 카드도

통할지 의문이다. 미술관의 경쟁력이 컬렉션의 퀄리티에서 나오는 만큼 수천억 원의 작품구입 예산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 만큼 광주시는 최근 지역미술계 일각에서 신중하게 내밀고 있는 '삼성미술관 리움 광주 분관' 카드를 추켜들 필요가 있다. 어떤 카드를 놓지 고민하는데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경쟁력 있는 대안에 읊이하자는 얘기다. 삼성미술관 리움(리움미술관)은 컬렉션의 질로 따지자면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 할 수 있다.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국보 제118호) 등 다수의 국보와 보물, 이우환, 박서보, 이종섭, 아나시 카루어, 루이스 부르조아, 데미안 허스트, 제프 쿤스 등 국내외 유명작가들의 작품이 1만 5000점에 이른다. 만약 리움미술관이 중앙초교나 전당 인근에 들어선다면 대인예술시장, 예술의 거리와 함께 업청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물론 이같은 화려한 청사진이 현실화되기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하지만 광주에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전당개관이라는 '조특급 프로젝트'가 있지 않은가. 얼마든지 리움미술관을 설득할 명분과 가치가 있는 것이다. 시는 지금부터라도 리움미술관을 유치할 수 있는 '정치력'과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문화광주에게 '미션 임파서블'은 없다는 각오로 말이다. /jhpark@kwangju.co.kr

'관광제주의 힘' 89개 미술관

비단 이중섭미술관 뿐만이 아니다. 최근 제주도에서는 수많은 미술관(박물관)들이 속 들어서면서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은펜칼럼



임명재
약사

민주당, 프로스포츠 구단이 되어라!

시국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호남이 훨씬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이라는 점만 크게 달랐을 뿐 바꾸고자 하려는 힘과 안주하려는 세력의 차이는 미미했다는 것이다. 그 미미한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던 원인을 찾아야하고 그리고 반성하고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마음을 고쳐먹고 새 출발을 해야 한다. 그 중심에 민주당이 있어야 하지만 기대를 갖는 것 자체가 무모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술하게 패배해왔다. 두 번 정권을 잡았지만 그것은 IMF라는 환경과 후보에 대한 인간적인 친밀감에서 탄생된 기적이었지 민주당의 승리라고 보기엔 무리였다. 인구도 적고 경제력도 약한 이곳의 열탕을 승리로 연결시킨다는 것 자체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라도 잘 안다.

민주당이 프로스포츠 구단처럼 운영되고 변해야 한다. 첫째, 시민들이 존경하고 믿을 수 있는 스타플레이어가 필요하다. 선동열, 이종범, 박찬호, 이승엽, 이대호, 그리고 주신수와 같이 최선을 다해 기량을 연마하고 팀의 승리를 위해 노력하는 멋진 스타플레이어가 필요하다. 스타플레이어를 통해 시민들의 관심을 끌어야 한다. 팀에 도움이 못 되면서 고참이라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선수

을 연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만들어진다. 경쟁 계파에서 당권을 잡거나 후보가 나왔다면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당헌과 강령에 충실했던 정치적 철학을 같이하는 집단도 아니다. 조금 알려진 얼굴이나 행세끼니 하는 정도면 연출만 잡고 열심히 쓰아니면 공천받는다. 그리고 그 연출이 사라지면 그 정치인의 미래도 동시에 암울해진다. 민주당을 버릴 수 없는 시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다. 합창미달이라고 다른 누구를 선택할 환경이 주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과격한 비유일지 모르지만 민주당은 사냥견이 아니다. 애완견이다. 누가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어렵다.

민주당이 프로스포츠 구단처럼 운영되고 변해야 한다. 첫째, 시민들이 존경하고 믿을 수 있는 스타플레이어가 필요하다. 선동열, 이종범, 박찬호, 이승엽, 이대호, 그리고 주신수와 같이 최선을 다해 기량을 연마하고 팀의 승리를 위해 노력하는 멋진 스타플레이어가 필요하다. 스타플레이어를 통해 시민들의 관심을 끌어야 한다. 팀에 도움이 못 되면서 고참이라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선수

은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고

책 읽는 습관, 어렵지 않아요

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해 왔다. 그러다가 최근에 독서방법과 도서관에 관련된 책들을 읽고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독서의 즐거움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다면 시간이 없어서 책을 못 읽는 사람에게 권할만한 방법은 없는 걸까.

먼저 각자가 가정·학교·직장에서 시간을 내서 책 읽기에 참여하는 것이다. 책을 읽는 것이 자기계발이나 업무에 도움이 되고,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되고 있지만 실제로 일상적으로 독서를 하는 직장인은 많지 않다.

직장에서는 반드시 업무와 관련된 책만 읽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업무를 시작하기 전 20분, 업무가 끝나기 전 20분을 잡으면 된다. 거기에 잡힐 전 20분을 더하면 하루 한 시간씩 책 읽기가 가능해진다. 더불어 자기계발서 같은 한 가지 분야의 책 읽기에 읽매이지 말기를 바란다. 문학소설, 인문, 고전 등 다양한 책을 읽는 것이 지루하지 않고 흥미를 더할 수 있다.

한 권의 책을 잡으면 반드시 끝까지 읽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기 바란다. 자칫 의무감 때문에 책 읽는 습관이 몸에 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을 소개하는 책을 읽거나, 전문 독서지도 강의 등을 통해 책 읽는 기술과 방법을 배워 보는 것이 좋다. 좋아하는 운동이나 악기를 배우는 것처럼 책 읽기도 매일매일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운동하다가 하지 않으면 감각을 잊듯이 책 읽기도 습관이 우리 몸에 떨 때까지 반복해야 한다.

끝으로,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를 알면 책 읽는 재미가 배가 된다. 그 방법은 책에 줄을 짓거나 삽화를 자세히 보면서 생각하거나 여러 권의 책을 책꽂이에 두고 정한 기간 동안 돌아가면서 조금씩 읽어내는 방법 등이

있다.

'책 앞에서 멎어지는 당신에게'의 저자 김은섭 작가는 누구든지 선천적으로 책과 안 친한 사람은 없다고 말한다. 다만 아직 끌리는, 이쁜바 궁합이 맞는 책을 만나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좋은 책이 아닌 당신을 즐겁게 하는 책으로 책 읽기를 시작하라는 뜻이다.

궁합에 맞는 책으로 읽기 시작하면 책 읽는 즐거움을 알게 될 것이다. 오늘부터 책 앞에서 멎어지지 않는 당당한 모습을 찾으시기를 바란다. 그 곁에 전남도립도서관이 있으니 많이 이용하시기를 권한다.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社說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이유 없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정치적 기득권을 내려놓는 방안으로 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 공천 폐지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정치 쇄신 공약으로 내세운 기초단체장 정당 공천 폐지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기초단체장 공천 폐지를 약속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결과물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도 최근 "국민에게 약속했던 정치 쇄신을 위해 국회가 개의되면 입법까지도 할 수 없었다. 단체장 등이 '생사여탈권'을 줘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예속되면서 뒷돈과 인사 청탁 등 각종 비리의 원천적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특히 호남과 영남 등은 지역구도가 강하게 남아 있어 특정정당이 집행부와 의회를 짜증이 하는 현상이 여전하다.

이런 상황에선 집행부와 의회 간의 견디는 비판과 감시는 기대하기 어렵다. 여야가 공천제 폐지에 착수한 만큼 국회의원들은 지방자치권이 뿐 아니라 내일에 유통되는 대표도 최대한 비판과 감시를 통해 국회의원들에게 예속되면서 뒷돈과 인사 청탁 등 각종 비리의 원천적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여야가 공천제 폐지에 착수한 만큼 국회의원들은 지방자치권이 뿐 아니라 내일에 유통되는 대표도 최대한 비판과 감시를 통해 국회의원들에게 예속되면서 뒷돈과 인사 청탁 등 각종 비리의 원천적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하지만 정당 공천제 폐지가 여야의 의지대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국회 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기득권을 없애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동의할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들이 민원이나 지역구 관리의 상당 부분을 책임져 왔기에 공천제를 폐지

도·해남 공무원의 거액 횡령과 맞물려 공직사회 회계 감시체계가 개선돼야 한다는 빗발친 요구가 무색할 지경이다.

이 학교 회계시스템은 학교 행·재정을 관리하는 '에듀파인'으로 종전 수작업 형태에서 벗어나 수납과 지급업무를 온라인에서 처리하도록 돼 있다. 은행 업무 등은 편리하나 관리자가 소홀히 할 경우 실무자를 지도 감독하기 어렵다는 게 맹점이다.

실무자의 기안을 관리자인 행정실장과 학교장이 점검하는 체계로, 실무자가 숨기려고 마음만 먹으면 문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게 맹점이다. 이번 사건도 학교장·지역교육청·도교육청이 실시하는 회계 사후 점검의 부실구조에서 비롯된 셈이다.

관계 당국은 공직사회의 회계부정을 막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관련 부서에서 순환 주기 단축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공무원 스스로의 청렴과 공복 의식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無等鼓

동·서양의 신화를 들여다보면 '신(神)도 결국엔 인간 상상력의 산물일 뿐'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장면이 적지 않다. 신들이 인간처럼 먹고 마시며 살아간다는 설정도 그 가운데 하나다. 고대 그리스를 비롯해 인도와 페르시아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은 '특별한 음식'을 먹음으로써 영생의 능력을 얻고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대표적인 '신들의 음식'이 네타(Nectar)와 암브로시아(Ambrosia)

다. 호메로스에 따르면

그리스 신들은 이를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젊음을 유지하고 꾸준히 그것을 유지하는 체계로, 실무자

가 숨기려고 마음만 먹으면 문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게 맹점이다. 이번 사건도 학교장·지역교육청·도교육청이 실시하는 회계 사후 점검의 부실구조에서 비롯된 셈이다.

그가 고환암을 이겨내고, 이 대회에서 7년 연속 우승한 '인간 승리'의 주인 공이었기 때문에 축구를 더욱 크다. 네트를 막아내는 데서부터 네트를 받아 마시고 불사의 몸이 됐지만 소마의 강력한 힘 때문에 혀가 두 갈래로 갈리겠다고 한다.

페르시아 신화에서는 '하오마(Haoma)'라는 음료가 등장한다. 조로아스터교의 경전 아베스타(Avesta)에는

신들이 이 음료를 마시고, 어떠한 적도 물리칠 수 있는 초자연적 힘을 발휘했다고 나와있다.

최근 미국의 사이클 황제 랜스 앤스트론(Lance Armstrong)이 세계 최고 권위의 투르 드 프랑스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 금지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가 고환암을 이겨내고, 이 대회에서 7년 연속 우승한 '인간 승리'의 주인 공이었기 때문에 축구를 더욱 크다. 네트를 막아내는 데서부터 네트를 받아 마시고 불사의 몸이 됐지만 소마의 강력한 힘 때문에 혀가 두 갈래로 갈리겠다고 한다.

페르시아 신화에서는 '하오마(Haoma)'라는 음료가 등장한다. 조로아스터교의 경전 아베스타(Avesta)에는

신들이 이 음료를 마시고, 어떠한 적도 물리칠 수 있는 초자연적 힘을 발휘했다고 나와있다.

최근 미국의 사이클 황제 랜스 앤스트론(Lance Armstrong)이 세계 최고 권위의 투르 드 프랑스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 금지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가 고환암을 이겨내고, 이 대회에서 7년 연속 우승한 '인간 승리'의 주인 공이었기 때문에 축구를 더욱 크다. 네트를 막아내는 데서부터 네트를 받아 마시고 불사의 몸이 됐지만 소마의 강력한 힘 때문에 혀가 두 갈래로 갈리겠다고 한다.

페르시아 신화에서는 '하오마(Haoma)'라는 음료가 등장한다. 조로아스터교의 경전 아베스타(Avesta)에는

신들이 이 음료를 마시고, 어떠한 적도 물리칠 수 있는 초자연적 힘을 발휘했다고 나와있다.

최근 미국의 사이클 황제 랜스 앤스트론(Lance Armstrong)이 세계 최고 권위의 투르 드 프랑스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 금지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가 고환암을 이겨내고, 이 대회에서 7년 연속 우